

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

(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전성준 사무관, 044-215-4531, 기여도 50%)
(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신지호 사무관, 044-215-7313, 기여도 50%)

I. 추진 배경

□ 최근 반도체 기술·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

○ 미국·일본 등 주요국들도 반도체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정책지원*을 추진 중

* (美) 「반도체과학법」 제정('22)을 통해 527억불 규모의 보조금·대출 자원 마련
(日) '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'('21)를 통해 1.7조엔 규모 기금 조성
(EU) 「EU 반도체법」 제정('23)을 통해 430억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

⇒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「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」* 마련('24.6.26)

*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(5.23)를 통해 기본방향 발표

II. 정책 내용

□ 금융, 세제, 재정, 인프라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 추진

○ (금융, 18.1조원+a)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,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1.1조원+a로 확대(0.3→1.1조원+a)

- '27년까지 최대 2조원(현금 1조원 + 현물 1조원)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 일반 대출 대비 $\Delta 0.8 \sim \Delta 1.5\%p$ 우대금리 제공

○ (세제)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('24년말 → '27년말) 및 국가 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범위 확대*

* SW 대여·구입비, 연구시설 임차료 등 포함, 국가전략기술·일반 R&D 동시 연구 인력에 대해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공제

- **(재정, 5조원+a)** R&D·사업화·인력양성 등 투자 확대 ('25~'27년)
 - * 첨단반도체 관련 대규모 R&D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완료, 글로벌 R&D 확대, 사업화 지원 및 인력양성 등 분야에 집중 투자
- **(인프라, 2.5조원+a)**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예타면제 등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대폭 높이고 인프라 비용도 적극적으로 분담

Ⅲ. 성과 및 기대효과

- 반도체 저리대출 즉시시행('24.7.), 도로·용수 인프라 예타면제, '25년 반도체 재정지원 1.7조원 반영 등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지원
 - **(금융)** 저리대출 프로그램 **8,388억원** 대출승인(11.15 기준, 18개社) 및 현금출자(^{'25년안}2,500억원)로 추가 금리인하 추진(최대 국고채 수준)
 - 생태계펀드 규모확대(3,000→4,200억원)를 위한 재정지원(^{'25년안}300억원)
 - 200억원 규모의 **'반도체 생태계 펀드' 1호 투자 승인**(8.30, 코아시아세미코리아)
 - **(재정·세제)** R&D, 인재양성 등 반도체 예산* 대폭 확대 (1.27→1.7조원) 및 국가전략기술 **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** 발표(7.25.)
 - * **(R&D)** 신규첨단패키징(178억원), 신규K-클라우드(370억원) 등 첨단기술개발(+0.1조원)
(인력) 신규소규모 설계특화 대학(2개소), **(사업화)** 신규팹리스 공동 첨단장비 구축(72억원)
 - **(인프라)** 도로·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신속조성 지원
 - (도로) 용인 국가산단 관통 **국도 45호선 서편 이설·확장**(4→8호선) 사업(총사업비 국비 8,843억원) **예타면제**(8.22.) 및 **착수지원**(^{'25년안}7억원)
 - (용수)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**용수공급 사업**(총 2.2조원) 대상 **예타면제**(10.23.) 및 **수자원공사 70% 비용부담** 예정(약 1.5조원)
 - * 수공 14,808억원(66.9%), LH(삼성) 4,927억원(22.3%), SK 2,408억원(10.9%)
- **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**을 위해 예산안·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신속히 추진하고, 투자 애로요인 발굴 및 규제개선 등 보완 지속
 - 「반도체특별법」 제정 논의에도 관계부처가 적극 참여